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8. 18

주간 달러/원 동향(8/11~8/14)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련 CEA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했다는 소식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며 달러 약세 나타나며 환율은 하락 출발. 이어 미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유입 등으로 반등
- 중반, 미 CPI가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다는 인식 속에 연준 9월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자 하락 전환
- 후반,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연준 '빅컷' 요구 발언 이후 달러 약세 나타났으나, 전일 연준 당국자의 선부른 금리인하에 대한 경계 발언 속 수급상 결제 수요 등에 의한 저가 매수세에 하방 경직성 보이며 약보합 마감

달러/원 전망

- 달러/원 환율은 연준 금리인하를 확신하는 분위기와 그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
- 다만, 시장은 다음주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인하 시그널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는 가운데 경계감도 다소 유입될 것으로 보임. 또한, 수급상 저가 매수세 고려 시 하방 경직성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미-러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다는 결과 등은 다소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불안정성을 이어가게 하며 환율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	------	------	------	------

1,378.5	1,393.0	1,378.3	1,382.0	-7.6
---------	---------	---------	---------	------

예상거래범위

1,375원 ~ 1,395원

유로·엔화 동향 (8/11~8/15)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화는 미 CPI 발표 전 경계감에 달러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약세로 출발. 미 관세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인식 속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이 유지되자 유로 반등
- 중반,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빅컷' 촉구 발언에 달러 약세 흐름 나타나면서 강세 지속
- 후반 들어, 예상을 웃돈 미 생산자물가지수에 연준 금리인하 전망이 다소 약화되자 약세 전환. 이어 주 후반, 우크라전 휴전 관련 미-러 정상회담 기대감에 약세폭 일부 되돌리며 1.69달러대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639	1.1730	1.1589	1.1702	+0.0063



엔화 동향

- 주초, 일본 금융시장은 '산의 날'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미 물가지표가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한 강달러에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혼재된 미 CPI 결과에도 연준 9월 인하 기대 지속되는 측면을 반영하며 소폭 강세 후, 중반 들어, 미 정부 인사들의 금리인하 압박 발언에 미 국채금리 하락을 반영하며 강세 지속
- 후반 들어,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과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미 PPI에 미 국채 수익률 반등하자 약세 전환. 이어 주 후반, 예상보다 강한 일본 성장률에 강세 보이며 147엔대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7.7	148.5	146.2	147.2	-0.5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8/11~8/14)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미 국채 금리가 중장기 구간에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국고채 금리는 미국 7월 CPI 결과에 대한 관망 심리 속에 보합권 등락 출발. 이어 미국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 지표에 대한 시장의 인하 기대 속 KDI의 국내 경제 불확실성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한 전망에 기존 0.8% 성장률 유지하였지만, 7월 미 CPI에 대한 경계감 속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상승
- 중반 들어, 7월 미국 CPI가 시장 예상 수준으로 나오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화된 측면이 국고채 금리 하방 압력을 높였으나, 국고채 초장기물 입찰을 앞두고 장기 구간 중심으로 상승 전환 흐름 시현. 이후 내년 예산 지출 구조 변경 소식 등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는 전반적 혼조 흐름 시현. 후반 들어, 국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건설, 미 관세에 의한 수출 우려 등의 영향 속 간밤 주요 연준 당국자 금리인상에 대한 신중한 기조 언급 등으로 소폭 하락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미국 CPI 발표 대기 모드 속 미-중 관세부와 시한에 대한 관망세 우세 속에 전일 당정 협의에서의 주식 양도세 기준 결론이 부재하면서 코스피는 약세 출발. 이어 뉴욕금융시장의 마이크론 반도체發 훈풍에도 불구하고, 미 CPI 및 국내 세제 개편안에 대한 경계감 이어진 양상
- 중반 들어,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물가 불확실성 완화에 상승세 나타냈지만, 단기 차익실현에 등락 양상 후 외국인 매수세 강화 속 상승 추세 복귀 흐름 시현
- 후반 들어, 미 CPI 발표 이후, 9월 '빅컷' 기대감이 커졌지만, 뉴욕증시에서 대형 기술주의 실적 부진 여파 등의 반영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종의 큰 폭 하락 속 개인과 기관 매도 등으로 제한적 상승 시현하며 마감